

## VI. 결 론

국내 손해보험의 국제적 위상은 전후 비약적인 성장에 힘입어 세계 10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손해보험시장이 성장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저축성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보험상품은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이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이름에는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통적인 손해보험 종목이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상품이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기업휴지보험도 그러한 시대였던 1969년에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 외국의 투자 자본의 요청에 의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업휴지보험 역사는 40년이 되어 가지만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상품이나 요율의 변화에 비교해 보면, 기업휴지보험은 40년이 경과하는 동안 고객인 기업들의 니즈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는 상품의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체적인 요율플랜 조차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 기업들의 리스크에 대한 중요도를 보면 기업휴지리스크를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규격 즉 사업연속성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정책과 기업의 사업연속성 계획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기업의 중요한 리스크로 부각된 기업휴지리스크관리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종합리스크관리 컨설팅 관점에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t;표 VI-1&gt; 기업휴지보험 가입기업과 미가입의 인식차

구 분	BI 가입기업	BI 미가입 기업
향후가입 의향	93.3%(제조업 91%)	11.5%(제조업 10.3%)
BI보험 효용	부채비율 : 사고전후 3년간 표준편차 10%이내	150% 이상 증가, 외부 자금 조달 필요
	영업레버리지비율 : 사고 후 비율 증가가 미미	사고 후 300% 이상 증가해 고정비지출 부담가중
	ROE : 감소하지 않고 증가해 투자자 유치 무난, 새로운 사업 확장 가능	100% 이상 급격히 감소해 투자자 외면가능성 증가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인식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선진국들의 인식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존재한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기업과 가입하고 있는 기업의 향후 기업휴지보험가입 의향을 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가입한 기업은 93%의 기업이 계속적으로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하나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11%만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기업휴지보험의 효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성과는 물론이고 자금운용 등 재무관리측면에서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업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에게 BI 리스크를 이해시키기 위해 미국 트래블러사나 영국 Zurich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기업휴지손실가액을 측정하고 보험가입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또한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970년대의 산업구조에서 현재의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한 경제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국내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고 이에 기초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통계적 기

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보험사들은 담보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 국가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연속성관리기준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자연재해, 테러, 화재 등 예측하기 힘든 각종 재난으로 인한 국가와 기업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즘, 사업연속성관리 기준의 도입은 국가와 기업의 중요한 핵심 자원의 안정성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초석으로서 그 도입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큰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손해보험회사는 기업들의 사업연속성계획(BCP)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와 업종별로 다양한 맞춤형 기업휴지보험 상품을 제공하여 국가 전체의 리스크 관리에 있어 협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